

수입개방 예시품목 발표를 보고



신 태 식
(본회 경남도협의회장)

최근 정부의 수입개방 예시품목 발표를 보고 선진국들의 농축산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들어올 것을 실감하면서 양돈인의 한 사람으로 심히 당혹함과 걱정스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밀어닥치는 대 홍수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미리미리 댐을 막아 수량을 조절하고 제방을 쌓고 수로를 정리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또는 이를 자원화 하여 유익되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이 곧 치수(治水)이며, 치수를 잘하는 군주는 성군(聖君)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 축산업계도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수입개방이라는 대 홍수가 닥쳐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생산자들은 과연 무슨 치수사업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방에 따른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방안제시와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선진국과 경쟁하여 이길려면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이던지 아니면 최소한 동등한 조건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농축산업이 정부의 막대한 지원으로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되는 동안에 우리의 농축산업은 비교우위를 신봉하는 경제각료들에 의하여 상공업의 희생제물이 되고, 세제(稅制)를 비롯한 각종 불리한 제도로 인하여 그 기반은 허약해져서 오늘날 국제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아무리 국제화시대가 되고 세계가 한 지붕 아래에서 모든 교역이 자유화된다고 하더라도 나라마다 식량은 안보적 차원에서 지켜 나가야 하며 자급률을 높여야 한다. 미국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소련이 미국에게 꿈쩍 못하는 것은 국민의 목숨인 식량을 미국에서 공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중요한 식량 생산에 정부에서 과연 얼마만한 배려가 있었던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물가 이야기만 나오면 농축산물이 물가 주범인양 취급하는 정부의 처사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며, 분통 터지는 일이다. '89년 양돈 불경기로 인하여 40%의 양돈농가가 도산되었으며 그 나머지가 요즈음 돈가 회복으로 겨우 기사회생 할려는 현시점에서, 정부가 물가안정을 빌미로 돼지고기 수입을 결정하고 수입개방 예시품목을 발표한 처사에 대하여 양돈농민은 절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각종 불리한 제도하에서 약한 기반을 가진 우리 농축산업이 수입개방을 맞이할 때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무참히 패하여 결국은 국내 농축산업은 생산기반을 잃게 되고, 영원한 수입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다.

정부는 국제경쟁력 향상에 불리한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의 파격적인
지원과 더불어 생산자들의 각별한 각오가
있다면, 양돈산업은 곳곳이 살아남을 것이며
찬란한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으며 성서에서도 “찾으라, 얻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살아남 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양돈업은 타 품목에 비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조건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금년내로 타결되리라 보는 UR협상을 앞두고 정부는 국제경쟁력 향상에 불리한 다음의 몇가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필요한 분야에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생산자들도 각별한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는 사료를 비롯한 축산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없애야 한다.

금년에 축산부분에서 징수한 부가세를 농촌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고 생색을 내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비능률적이며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돈이란 상인의 손을 거치면 불어 나지만 공직자의 손을 거치면 줄어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료원료용 곡물의 구입을 자유화 해야 한다.

사료원료용 곡물을 자유롭게 구입하여 자가배합 할 수 있다면 사료공장에서 발생하는 판매경비 등이 생략되므로 사료원가를 많이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는 농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시설 현대화에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농축산업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전업농으로 끌어올려야 하며, 날로 극심해지는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의 현대화에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넷째,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일어나고 있는 요즘에 완벽한 처리시설을 할려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영세 축산업자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낙후된 유통구조 개선과 유통시설에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생산자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생산자 단체에 적극 참여하여 스스로의 힘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의 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와 생산자들이 다 함께 노력한다면 UR보다 더 큰 흥수가 밀려 온다고 해도 우리의 산업은 곳곳이 살아남을 것이며, 찬란한 꽃을 피울 것이다.